

평생학습 문화 수용하기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

초학제적 전문가 협의 보고서

21 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친애하는 세계지도자들이여,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교육은 특권이 아닙니다.
교육은 권리입니다. 교육은 평화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한국어판

평생학습 문화 수용하기: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
한국어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본 한국어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협력해 발간했습니다.

원제: Embracing a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contribution to the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UIL, 2020)

레이아웃 및 디자인: Ulrike Köhn
2020년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출간



이 출판물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의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UNESCO Open
Access Repository의 이용약관(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은 성인 계속교육, 문해 및 비형식
기초교육에 초점을 두고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역량 강화,
네트워킹 및 출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IL의 출판물은 교육 분야의 연구자, 기획자, 정책 입안자,
활동가들에게 소중한 자료입니다. UIL의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수립되지만, 출판물은 기관의
독자적인 책임 하에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 나오는 명칭과 자료는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지역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이나 경계의 획정에
관한 유네스코 또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번호 | RM2021-8

발행일 | 2021년 2월

발행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번역 | 이정현

교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

감수 | 김만희, 이은지, 홍보강, 오혜재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화 | 02-3780-9700

홈페이지 | www.nile.or.kr

| | |
|-------------------------|----|
| 발간사 | 4 |
| 한글판 발간사 | 6 |
| 감사의 말 | 8 |
| 권고사항 요약 | 10 |
| 서론: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본 교육의 미래 | 12 |
| 평생학습 2050 비전을 향하여 | 14 |
| 우호적인 환경 조성 | 18 |
| 주요 메시지 | 22 |
| 결론: 평생학습 문화를 위하여 | 40 |
| 출처 | 42 |
| 부록 1: 실행 조치 선정 목록 | 46 |
| 부록 2: 협의 참가자 | 54 |

발간사

데이비드 아초아레나(David Atchoarena)

지난 반세기 동안 유네스코의 획기적인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국제 교육계는 개인,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교육의 변혁적인 힘과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가치를 인식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책 입안자들은 평생학습을 교육 의제의 중심에 두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열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기초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경제에 속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일부는 재정적 장벽이나 기타 장벽에 직면하여 학습에서 배제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학습의 직업 및 기술 측면에 과도하게 집중했던 시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의 복잡성과 다차원적인 성격을 인식하려면 평생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인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생학습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정책 분야를 넘어서 정책 의제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이 교육시스템과 사람들의 삶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또한 사람들이 능동적인 세계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학습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기초를 제공한 전문가 협의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이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장벽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학습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습니다. 유네스코의 2019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의 틀 안에서 기획된 이 보고서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 지식 생산 및 학습을 재고하는 데 좀 더 폭넓게 기여할 것입니다.

'거대한 도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UIL은 모든 차원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슈들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을 검토하기 위해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접근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여성 5명과 남성 7명 등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행동 권고안 등을 담은 풍부한 자료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성별, 나이, 배경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학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헌신적이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진정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이 형성한 미래에 대한 비전은 평생학습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치 및 원칙뿐만 아니라 주요 실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한 후, 이 보고서는 평생학습을 교육 정책의 지배 개념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 환경의 주요 특징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일련의 주요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고, 각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들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정책 조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부록 1'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학제적 협의를 통해 시작된 이 중요한 작업이 유네스코의 '국제미래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가 성찰한 내용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는 여기서 제안된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회원국들의

정책 결정, 연구, 교수 학습 실천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하며, 회원국들이 평생학습 문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초아레나(David Atchoarena)

유네스코 평생교육원장

한글판 발간사

전 세계는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과 기후 위기 등의 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교육 환경에서도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새롭게 직면한 과제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평생학습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이 보고서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실현을 위한 핵심 메시지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에서 제안하는 평생학습 2050 비전과 초학제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국내 평생학습 관계자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실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평생학습을 가로막는 도전과제로 불평등과 같은 강력한 사회 구조, 평생학습 개념에 대한 몰이해, 포용적 교육 정책 미흡 등을 해결하고 평생학습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이슈는 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평생학습의 과제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보편적인 관점에서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보고서는 '평생학습 문화 수용하기: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를 주제로 미래사회 평생학습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가지의 주요 메시지와 행동방침 및 구체적인 실행 조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메시지로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정하기, 초학제적 연구 및 부문 간 협력 증진, 학습 기술에 대한 폭넓고 공평한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교육 정책 및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더 유용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 문화 수용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재개념화, 법·제도 마련 및 재정 지원, 발전된 디지털 기술의 적용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 발간이 국내 평생학습 정책 입안자 및 정부 관계자, 지역사회 평생학습 실천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감사의 말

이 보고서는 '교육의 미래: 평생학습의 기여'에 대한 초학제적 온라인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고도의 협력 작업 및 학습 과정의 산물입니다. 이 보고서는 교육 분야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논의한 국제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Daniel Baril, S.H. Annabel Chen, Julieta Fierro Gossman, Walter Leal, Precious Lunga, Tonic Maruatona, Eduardo Mendieta, Sunny Xinchun Niu, Jim Ogg, Neil Selwyn, Abla Sibai, François Taddei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본 보고서의 출판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협의를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고 논의를 촉진시키며, 또한 그 결과를 처리하는 데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Nele Fischer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최종 마무리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에 계신 Paul Stanistreet의 세심한 편집과 Cendrine Sebastiani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을 지원하고 국제미래교육위원회와 업무를 연결해 준 유네스코의 '교육 연구 및 예측 프로그램(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Programme)'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Sobhi Tawil, Noah Sobe, Keith Holmes의 기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권고사항 요약

이보고서는 2050년까지 평생학습문화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미래 중심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불평등 악화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서 기술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들로 도전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를 학습사회로 이해하는 사회는 물론 자신들을 전 생애에 걸친 학습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모든 연령과 배경의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습 과정과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동 설계하고 이용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요 주도형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학습 여정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한다.

한편, 학습은 동료 및 세대 간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는 집단적 과정이어야 한다. 이 사회적 차원이 강조하는 점은 개개인에 대한, 서로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그리고 지구에 대한 돌봄을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 기회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배제된 인구 집단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집단적으로 구축된 글로벌 학습 생태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포함하여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을 유연하게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는 모든 영역에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계획적인 또는 자발적인 학습, 개인적 또는 집단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학습 생태계는 교육자원 — ‘교육 커먼즈(educational commons)’ — 및 개방형 기술의 무료 사용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육기관의 변화, (공공) 학습 공간의 재창조,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의 활성화를 통해 학습 기회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과 메커니즘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얻어진 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 검증, 인증(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RVA)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과 사회의 학습 수요를 민주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비전은 우호적인 환경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기본적인 요구와 강한 사회 구조의 확보가 평생학습을 증진시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이다. 학습을 노년기를 포함한 전 생애에 걸쳐 양성해야 할 타고난 인간 능력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층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노화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표현에 기여하는 교육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을 경제적 거래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의 공적 및 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오픈 소스(open source) 운동의 성과와 잠재력을 기반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학습자를 위해 기술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모든 요소들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2050 비전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요 주도의 관점을 강조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적절한 자원 조달과 자원 동원을 요구한다.

¹ 국내 도서와 논문에서 commons는 공유재, 공유자원, 공동자원, 공동자산 등 맥락에 따라 여러 단어로 쓰인다. 이것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경험도 포괄하기에 이 번역문에서는 ‘커먼즈’로 표기했다(역자 주).

주요 메시지 및 행동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특성 인식(중기-장기)

- 학습 제공을 다양화하라
-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라
- 인정, 검증 및 인증(RVA) 체계들을 통합하라

2. 평생학습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 및 부문 간 협력 증진(단기-중기)

- 초학제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라
- 초학제적 연구를 동원하라

3. 취약계층을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 (단기-장기)

- 학습자와 교육자를 전략 수립에 참여시켜라
- 배제된 계층을 참여시키기 위한 국가 캠페인을 시행하라
- 혁신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제도를 찾아내고 결과를 보급하라

4. 평생학습을 공유재(common good)로 확립 (중기-장기)

- 평생학습에 대한 커먼즈 기반의 접근방식을 촉진하라
- 디지털 경제의 기업 부문과 대화에 참여하라

5. 학습 기술에 대한 폭넓고 공정한 접근성 보장 (중기-장기)

-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라
- '2050년을 향하여 - 공유재 및 공공재(public good)를 위한 디지털 학습 기술'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라

6.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단기-장기)

- 교육과정을 개정하라
- 교수법을 혁신하라
- 지역사회에 개방하라

7. 학습의 집단적 차원 인식 및 촉진(단기-장기)

-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라
- 정책을 통해 집단학습을 촉진하라
- 학습을 기념하라

8. 학습도시를 포함한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장려 및 지원(단기-장기)

-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라
- 학습 기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하라.

9. 일터학습의 개선 및 활성화(중기)

- 일터에서의 훈련 기회를 늘려라
- 일터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라
- 고용주가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권장하라
- 일터학습의 다양한 결과를 인지하라

10.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중기-장기)

-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개발하라
-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지정하라
-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라

서론: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본 교육의 미래

지구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단계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처하고 원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등에서 비롯된 혼란과 불확실성을 고려해보면, 평생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포퓰리즘 정치의 성장, 고의적인 허위 정보의 확산, 그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은 능동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갖춘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있어 평생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평생학습은 또한 기술 개발과 창의성을 통해 고용 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좀 더 결속력 있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구축한다. 요약하면, 평생학습은 전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보다 평등하고 풍요로우며 건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풍부한 잠재력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의 발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코로나 19 위기로 드러난 디지털 기회의 전 지구적인 불균등한 발전을 포함한 많은 해결 과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면, 모든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교육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이주의 증가, 급속한 기술 발전, 노동시장의 변화에 점차 더 직면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는 반면 일부 직업들은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개는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학습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재개념화는 필연적으로 복잡해지면서 교육 분야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

평생학습을 교육의 개념적 경계를 넘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학습을 더 큰 사회 영역과 다시 연결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고는 기관의 역할, 기술의 활용 및 지식 자원 등과 같은 핵심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교육의 미래'를 풍부하게 고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은 학습을 통해 시민과 정책을 연결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평생학습은 형식교육 시스템과 '기존의' 교육 정책을 넘어서는 도구와 전략을 구상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로 인해 사람들이 처한 환경의 차이점과 교육기관 이외의 수많은 학습 공간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평생학습은 또한 교육 정책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인식은 물론, 공공 정책의

대상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의 미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적 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의 미래: 평생학습의 기여'에 대한 초학제적 온라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 보고서의 토대를 제공한다.² 인문학, 경제학, 교육, 철학, 공공보건, 신경과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초청을 받아, 평생학습이 2050년까지 바람직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문가들의 통찰력 덕분에 독자들은 진정한 평생학습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는 교육을 그리고 사회 전체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비전 내에서 인권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 콘텐츠 및 교육 커먼즈의 공동 창작을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학습 경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에 대한 평생학습의 변혁적인 잠재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10개의 주요 메시지 및 행동 방침을 제공한다. 이는 2019년 9월 유네스코가 설립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와 국제사회 전체에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교육 실무자들이 교육학적 접근방식에 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와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² 초학제적 협의 과정은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 협의는 유네스코의 '교육 연구 및 예측 프로그램'과의 협력 아래 유네스코 평생교육원이 조직하였으며,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Futures of Education)' 이니셔티브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평생학습 2050 비전을 향하여

평생학습의 비전은 미래에 관한 폭넓은 이해의 틀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협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관점에서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탐구하면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는 데 전념했다. 이 집단적 비전은 '평생학습 문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학습과 지식 생산이 어떻게 이해되고 이루어지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학습자(동기 부여, 능력, 학습 방식)와 학습의 사회적 차원(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집단적 노력으로서의 학습)에 동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2050 비전은 학습의 내재적 잠재력에 대한 강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변화를 겪은 세계에 관한 것이다. 사회는 스스로 의식적으로 학습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생학습자로 인식한다. 지속적인 학습 정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교육은 단순히 수업에 등록하는 것 이상으로 간주된다. 평생학습은 '전형적인' 삶의 과정을 인식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그 복잡한 과정에 대처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학습 경로가 더 이상 연령의 범주와 연계되지 않고 형식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서, 삶의 과정은 더욱 다양해졌고 교육과 학습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졌다.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활동은 일, 가족, 시민 참여, 레저 등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널리 퍼져 있다. 학습자들은 연령, 방식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식이나 기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든,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든, 단순히 기술 향상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학습자의 자율성은 평생학습 문화의 토대다. 자신만의 학습 여정을 관리하고 자신만의 학습 전기(learning biography)를 만드는 경우처럼 '학습의 학습(Learning to learn,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은 기본 역량이 되었다. 모든 수준의 학습을 학습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수요를 고려하면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사고하고 계획하는 것으로의 중대한 전환을 제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자들은 이미 규정된 지식의 소극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학습자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학습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동 설계하고 이용한다.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학습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얻어진 학습 결과의 인정, 검증, 인증을 위한 법적 토대와 메커니즘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개인적 및 사회적 학습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상 과정과 협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학습은 동료 집단 간에,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집단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교육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그리고 지구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시민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가장 배제된 학습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학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수많은 기회를 통해 학습자를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학습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한 소통은 학습 및 학습자 지원을 위해 상호 연결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 생태계는 모든 디지털 기반(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지원) 학습 및 실생활 경험 학습은 물론, 혼합형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포함해 다양한 학습 양식을 유연하게 통합한다. 학습 기회는 계획적인 또는 자발적인 학습, 개인적 또는 집단적 학습을 허용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지역 인프라와 전 지구적 연결성 그리고 후원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및 온라인 학습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의 특정한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디지털과 대면 요소들을 통합하는 혼합된 혁신적인 학습 개념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학적 원칙들이 개발되었다.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연령대, 배경과 능력을 가진 학습자의 인지적 및 정서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한 전략들이 설계되었다. 학습자는 개별적인 상황, 기존의 기술과 지식, 학습 요구에 따라 초급부터 최상급 단계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학습하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학습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이외의 학습 공간을 재창조하여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였다. 학습을 위한 공공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외에, 모든 부문의 학습자 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기회들도 있다. 그리고 학습자원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교육 커먼즈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은 모든 수준의 협력과 시너지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제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통합하여 학교 중심의 교육 문화를 변화시켰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형식교육기관들은 필요한 지식은 물론 학습 기회 및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면서 평생학습을 위한 토대를 조성한다. 게다가, 평생학습을 인권으로서 인정하는 교육권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 부처들은 평생학습을 위한 부처로 변모했다.

이 평생학습 비전이 현실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5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 문화는 신체적, 정신적 행복과 더불어 경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게다가, 평생학습은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포용과 평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평생학습은 사회적 응집력, 적극적인 시민성 그리고 활발한

3 '교육 커먼즈(educational commons)'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이 부여한 연결, 허가 또는 접근 없이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 학습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육시스템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이러한 자원을 '커먼즈'로 간주한다(<https://www.igi-global.com/dictionary/preparing-virtual-workplace-educational-commons/38299>).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학습자로 새롭게 구상하는 문화적 전환은 지구상의 모든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평생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집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학습 역량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회는 좀 더 회복력이 있는 사회가 되었다. 평생학습으로 인해 개인과 집단들은 (새로운) 지식 체계를 습득하고 생산하며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는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하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 19 위기 등과 같이 교육이 중단된 경우에 임시변통으로 마련된 교육 커먼즈 및 비상 계획을 통해 학습과 교육의 회복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평생학습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생학습은 신체적, 인지적 및 정서적 다양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유연한 학습 경로를 장려하고 무형식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전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예를 들면, 장애인, 육아 의무를 가진 부모, 노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는 지식과 새로운 종류의 직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환경에서

일자리와 경제의 미래를 재배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기본 소득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회적 선(social good)으로서 학습을 폭넓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평생학습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지구를 위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지속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자유와 환경적 책임을 연결시켜 준다. 개인적 수준에서 보면, 평생학습은 이제 모든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인들은 평생학습에 의해 행동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정용 에너지 소비, 폐기물 재활용 또는 비열적(non-thermic) 운송 수단으로의 이동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 학습 조직으로서 정부와 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들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터에서의 평생학습은 지속가능한 실천들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길러진 체계적 사고, 예측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기후 변화가 제기하는 과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교육 커먼즈 및 학습 기회(물리적 및 디지털 기회 모두)의 증가는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을 위한

통합과 평등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사회적 경제적 소외에 대한 대응 및 성별 격차 해소가 그 예들이다. 가장 취약한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평생학습의 핵심이며, 학습 자료, 도구, 프로그램 및 생태계의 공동 설계와 공동 창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접근이나 기술의 부족과 같이 불평등이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인식과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학습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과 공감을 강조하고, 다양한 삶의 방법을 이해하며, 집단학습 방식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에 관용과 (평화적인)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뿌리내리게 해주었다. 또한 학습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은 지식을 접하게 하고, 그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지적 공간으로 데려가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전에는 배제되었던 지식(토착지식 등)이 중시되고 장려된다. 그 시스템의 참여 방법에 관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예: 건강, 피임, 정신적 외상 탈출 및 부모 역할).

집단학습 방식은 사회적 응집력을 지지하고, 소외에 대응하며, 적극적인 시민성과 정치에 대한(재)참여에 동기 부여를 하고, 활발한 문화를 촉진한다.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사람들을 교육받은 시민이 되도록 지원하며, 신중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문화는 호기심, 지식, 즐거움, 집단적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정체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이룬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자부심과 자존감에 기여하게 되면서, 상호 간에 유익한 교류와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평생학습의 시각에서 보면, 단순히 기존의 학습을 강화하기보다는 지식을 넓히고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학습은 여러 면에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켜 왔다. 정기적인 지적 참여는 건강한 노화를 돕고, 집단학습 방식은 사회적 응집력을 키우고 소외감을 해소시킨다. 학습자를 중심에 두면 사람들의 정치적 및 문화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목적 의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형식 및 비형식 학습 기회는 건강 및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은 다시 사회에 의료 비용을 줄여준다. 여가, 즐거움, 향유를 위한 평생학습의 증진은 집단적인 행복을 더욱 향상시킨다. 따라서 누구나 학습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

협업 과정을 통해 표출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우호적인 환경이란 현재 평생학습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도전과제들을 규명하고, 이것들을 완화하거나 기회로 전환하면서 일련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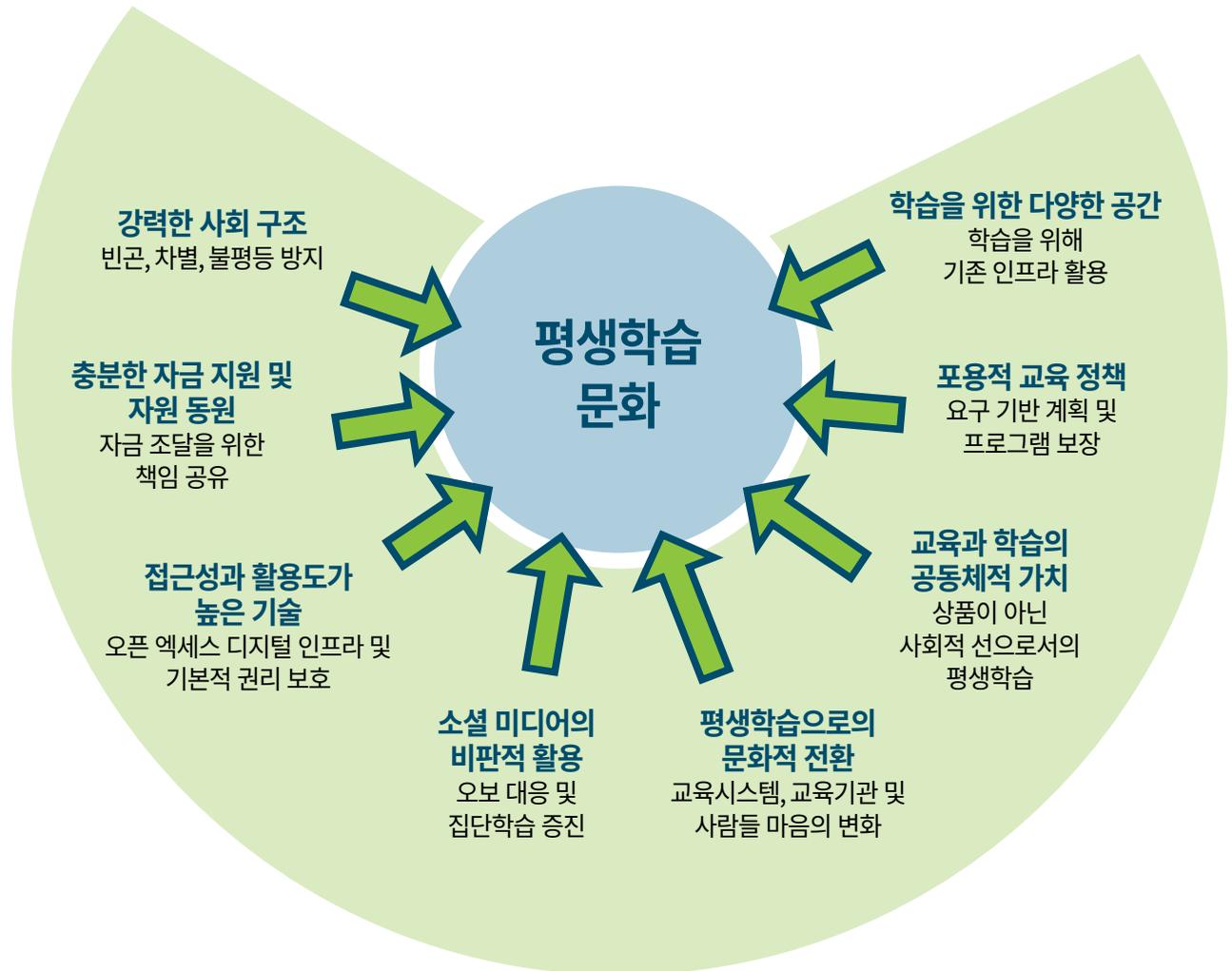


그림 1: 평생학습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광범위한 평생학습 문화는 빈곤, 차별 및 기타 형태의 불평등을 방지하는 **강력한 사회 구조**에 의존한다. 그 반대로, 평생학습 문화는 사회 구조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폭력, 극심한 빈곤, 아동 노동, 식량 및 깨끗한 물 부족, 전기 및 인터넷 접속 어려움 등과 같이 기본적인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심각한 장벽이 있으며, 이는 교육 격차를 벌려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교육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에 의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런 제안은 이미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공개 온라인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의 참여 유형에서 이러한 효과('매튜 효과'로 알려진)를 관찰할 수 있다. 학습 공급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화는 학습 사이트와 기회를 늘리고 다양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학습 공급의 변화는 빈곤, 차별 및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 공급의 변화는 폭넓은 지식과 역량에 걸쳐 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학습 수요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평생학습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및 사회 정서적 다양성(지적 능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포함)의 측면에서 개인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학습과 관련된 인지신경과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보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 학습자와 교육자 및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뇌 과학을 증진시키려면 평생학습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뇌 과학은 보편적이므로,

적절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 의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국제 포털이나 포럼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 또한 비침습적 뇌영상(non-invasive neuroimaging) 연구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뇌에 관한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럼은 학습과 교육에 유용한 원칙들을 도출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주목할만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의 다양성은 인구 구조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은 나이 듦(aging)을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노령층의 권한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평생학습 문화에는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학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학습은 노인들의 학습 요구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기여를 다루어야 하며, 또한 세대 간 및 가족 기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노인 문제를 교육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고령 인구를 위한 평생학습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과 노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감소하며, 종종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 집단은 학습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나이 듦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학습이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변화시켜야 한다. 고령 인구의 장점과 잠재적인 기여는 또한 미래의 일자리 및 진행 중인 산업혁명 4.0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은 **충분한 자금 지원 및 자원 동원**에 의존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위한 재원을 늘리고 다양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성인학습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 연구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개인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만이 충분한 자원 확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정부, 비정부기구(NGO), 민간 부문, 지역사회 등 모두가 이 분야의 새로운 구상이나 창업을 위한 시드펀딩(seed funding)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에 투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원한 자원과 자원은 학습 생태계의 각 단계별로 분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문이 기여를 하지만, 국가가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자금 지원 방식은 특정한 요구(예: 대규모 이주 인구, 고령 인구 또는 도시 밀도 등)에 따라 지역 및 지방의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촉진자의 차원에서 빈곤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학습의 충족되지 않는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안내하고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호적인 환경이란 평생학습의 다면적인 혜택을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혜택을 평가하기보다는 **교육과 학습의 공동체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강력한 학습 공동체는 사회적 자유를 환경적 책임과 연결시키며, 기후 재해, 전쟁, 분쟁 또는 다른 형태의 불안정에 직면하여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욱이,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는 모든 사람이 지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커먼즈의 제공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교육이 개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에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이 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이 되면 집단적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 산업의 경제적 이익은 종종 평생학습을 사회적 선으로 간주하는 개념과 충돌한다. 교육자원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과 소유권은 이윤이라는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학습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디지털 학습 시스템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이익을 주는 교육 인프라는 오직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학습 콘텐츠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경우라면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그 콘텐츠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한 디지털 인프라가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인프라는 프라이버시 권리(privacy rights, 사생활권) 침해 및 데이터 악용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학습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사용과 접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기술적 인프라 및 학습 도구들은 프라이버시와 포괄성을 보장해야 하는 반면, 오픈 액세스 및 오픈 소스 운동, 협력 모델 및 이에 따른 정책들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커먼즈'를 향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소셜 미디어의 비판적 활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비디오 자습서(video tutorial)와 같은 무형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자이다. 하지만 오보 및 허위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들은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전문성과 지식 및 사실에 대한 거부는 평생학습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학습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사용 능력과 알고리즘으로 유도된 학습에 대한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공유재(common good)를 지향하는 교육 커먼즈 플랫폼의 개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으로의 문화적 전환**은 정책 입안자, 기관 지도자, 교사, 부모 또는 학습자 중 그 누구에 의해서든 개인을 위한 평생학습의 개념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학습에 대해 일반화된 개념은 초기 교육의 수료 이후 제공되는 성인교육과 강좌들로 한정시킨다. 이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기회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는 추가 교육을 취미로 간주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평생학습 관점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저항이 종종 있는데, 특히 형식교육 공동체와 기관 내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평생학습 개념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타고난 학습 능력을 핵심에 두고, 평생에 걸친 학습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의 의미와 평생학습 문화에 대한 소통이 중요하며, 특히 학습자의 동기 부여와 관련하여 그러하다. 교사는 새로운 방법과 교수법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그 기회들을 활용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은 저절로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포용적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수요 측면의 관점이 부족하고 학습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그리고 법 제정)이 부족하다면 평생학습 문화는 실현되지 못한다. 포용적 교육 정책은 불평등을 막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수요와 요구(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수요와 요구)가 충족되도록 학습자와 실무자를 기본적으로 정책 계획에 참여시켜야 한다. 수요 측면의 관점은 학습 사이트들을 개념적으로 연결시켜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학습자들의 궤도에 초점을 맞춘 학습-경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습 프로그램 설계의 변화는 “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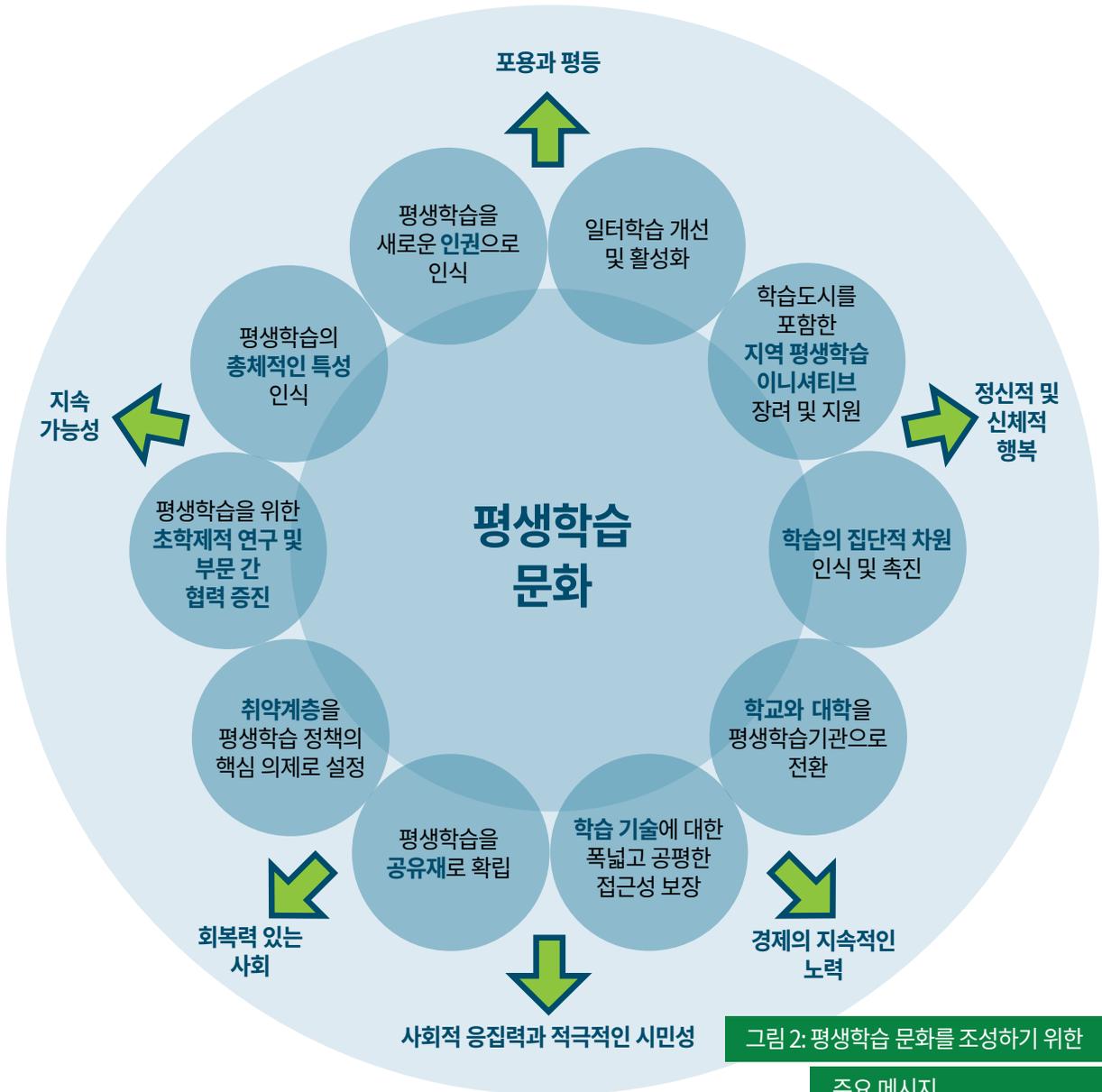
세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 형태에 진입하는 학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역자 주: 무형식학습의 한 형태로, 짧은 단위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접속하여 학습하는 형태) 및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역자 주: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학습 경로를 다양하게 늘림으로써 평생학습 문화를 증진할 수 있다.⁴

마지막으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 공간**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 공간에는 도서관, 박물관, 지역사회 센터, 종교 장소 등이 포함되며, 일부 학교와 대학들은 전통적인 형식교육 제공과 함께 보다 폭넓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의 강화(예: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기여하는 환경의 중요한 요소들이 발전할 수 있다. 클럽이나 협회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공간 외에도, 일터는 평생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의 또 다른 예다. 일터에서의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은 이미 상당한 평생학습의 자원이지만, 이 과정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달리 일터에서의 직업기술 훈련은 역량과 경험의 전달을 위한 세대 간의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 문화에는 혁신과 새로운 인프라의 조성이 필요하지만, 기존 인프라와 기회, 활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⁴ 채프먼 대학교는 ‘제 1세대’ 참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동된 이해를 반영하는 간결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https://www.chapman.edu/students/academic-resources/first-generation/index.aspx>): “제 1세대 대학생은 부모/법적 보호자(들)가 학사 학위를 수료하지 못한 학생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당신이 가족 중에서 4년제 대학/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메시지

이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비전과 그 긍정적인 효과 및 평생학습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들에 기반하여 **10가지 주요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 지식을 수정하고 교육과 학습 조직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는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 연구 의제, 이니셔티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실행 가능한 방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메시지들을 개괄하고 있으며, 인간 삶의 다양한 차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특성 인식

평생학습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제한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종종 성인교육, 노인교육,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또는 직업을 위한 기술 등과 같은 좁은 의미의 용어와 혼용된다. 평생학습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자면, 학습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든**) 일생 동안의 삶 전반에 걸친 것이고, 교육시스템의 안과 밖(**어느 곳이든**)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습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누구든**)에 의해 수행되고, 대면과 원격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영역의 지식(**무엇이든**)과 관련된다.

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학습의 '**언제든**'의 원칙과 학습 경로를 통해 이 원칙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이 원칙은 학습 성과의 축적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학습 전기의 결과로 이어진다. 학습을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을 특정 연령대와 엄격하게 연계된 연속체로 보는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선다. 누구나, 어느 연령에서든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어느 곳이든**'의 차원이란 평생학습 서비스들을 하나의 체계라기보다는 분산화되고 다양화된 공급물의 네트워크로 개념화하는 학습 생태계의 비전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간의 경계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형식학습은 형식교육기관(학교나 대학 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 직장 또는 그 밖의 다른 곳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여 형식학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침투성(permeability)을 이전에 명백하게 정의되고 분리된 학습 환경들 사이에서 촉진하는 것이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특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

네트워크화된 학습 경로에 대한 비전을 채택하면 평생학습의 복잡성을 보다 운영적인 방식에서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 경로의 관리를 통해 모든 학습 기회(학습 생태계)에 걸쳐 있는 학습자의 프로그램 지원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전기를 만드는 자율성과도 관련이 있다. 평생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한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역량이란 개인의 학습 능력, 학습 기회의 이용 가능성, 다양한 맥락에서 얻은 학습 결과에 대한 인지, 그리고 유연한 학습 경로의 조성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정책의 초점이 공급에서 수요로 전환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학습 수단과 방식은 기술 개발에 크게 힘입어 모든 집단과 개인을 위한 학습 경로를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 그리고 지도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학습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며, 이것은 학습의 총체적인 비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중요한 측면이다.



행동 방침

- 학습 제공을 다양화하라:** 다양한 영역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면서 학습 기회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학습 제공자 간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내에서 학습 사이트들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공급에는 폭넓은 범위의 지식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수요를 늘리고 잠재적인 학습 경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공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예로는 마이크로 러닝과 디지털, 모바일 및 혼합형 학습 활동 등이 있다.
-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라:**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는 평생학습자의 기술, 역량 및 태도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제 표준으로서 구상되어야 하고, 또한 각국이 적용하고 맥락화하기 위한 참조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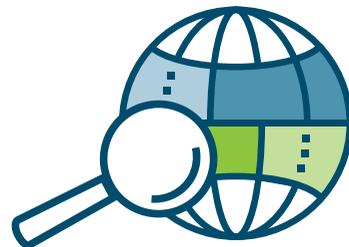
이것은 형식과 비형식 학습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경로, 모든 연령대의 진입 및 재진입 지점 등을 포함한 한 개인의 학습 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 인정, 검증 및 인증(RVA) 체계들을 통합하라:**

이러한 통합은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를 인정하는 유연한 학습 경로를 만드는 데 핵심이다. 선행 학습의 RVA를 위한 절차는 기존의 입학 자격 요건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생애의 늦은 단계에서 교육에 재진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RVA는 또한 인구의 폭넓은 층을 개방적이고 원활하며 유연한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평생학습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 및

부문 간 협력 증진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상호 연계된 과제들은 단일 학문 분야 또는 특정 부문 내에서 해결될 수 없다. 그 과제들은 다양한 분야 및 이해관계자들(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업가, 교육자,

학습자 등)로부터 집단 지성을 한 데 모을 것을 요구한다. 학습 과정은 학제적 및 부문적 경계들을 넘어서야 한다. 평생학습은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생활 환경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학제적 접근방식과 부문 간 협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교육 분야를 넘어서 학습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다양한 학문 분야 내에서 평생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평생학습 문화로의 전환을 달성하고 평생학습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이다.

초학제적 및 학제 간 협력에는 공동 연구와 더불어, 혁신적인 학습 계획들(예: 전통적 학습과 디지털 학습을 연결하는 혼합형 교수법 개발 등)의 실질적인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혁신은 학문 분야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시각에서 볼 때, 교육시스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형식교육의 안과 밖에 있는 유연한 학습 경로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로들을 통해 개인은 평생 동안 다양한 학습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에 기반한 학습 전기를 만들 수 있다. 학습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며, 또한 많은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초학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특히 정보 및 학습 기술 분야에서 교육 실무자, 학습자, 민간 부문의 참여는 학습 도구, 교수법, 플랫폼의 개발 및 실행과 매우 관련이 높다.

행동 방침

• 초학제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라:

지속적인 지식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노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전용 네트워크를 개시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네트워크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는 교육 커먼즈 개념에 기반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학습자원을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디지털 학습 도구들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협력 연구에 참여하며, 학습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평생학습 분야에 견고한 초학제적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예: 전 세계 평생학습 활동의 지도

제작), 정책 결정의 참여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방성과 투명성이 이 플랫폼의 핵심 원칙이 될 것이다.

- **초학제적 연구를 동원하라:**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평생학습자가 되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동기 및 기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신경과학 연구의 결과들은 이러한 점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초학제적 연구는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가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이 프레임워크를 맥락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주요 메시지 1' 참조).



3. 취약계층을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



지속적인 불평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노력과 조치들이 필요한데, 특히 학습 기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이주자, 난민, 노인층,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 등)에게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소녀와 여성도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려야 한다. 교육은 성폭력과 빈곤을 줄이는 주요 수단이 되어 왔다.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의 확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킬 것이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며, 소외된 집단을 평생학습 정책 의제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 이 의제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도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법률, 정책, 재정 지원 등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이 대상을 주류화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다양한 학습 양식을 포괄하므로, 형식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배제된 사람들은 인증을 받은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양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의 한 구성 요소인 포용적 교육은 학습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권장한다.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자, 특히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학습 기회를 만들고 설계할 때 포용성은 보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기회는 학제 간 연구 및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다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학습 기회는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하고 지역적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연령, 성, 지위, 종교, 능력 등의 다양한 배경을 장애물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점은 취약계층이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와 시민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평생학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학제 간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는 포용적 교육은 학교와 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가족과 지역사회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외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포용적 교육은 이 집단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 요인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전 생애에 걸쳐 그들을 지지하는 요인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배제의 요인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취약한 개인들이 성, 빈곤,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점점 더 소외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평생학습 정책과 실천은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행동 방침



- 학습자와 교육자를 전략 수립에 참여시켜라:**
 평생학습의 계획 수립에 학습자와 교육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프로그램과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때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면 학습의 요구와 수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배제된 계층을 참여시키기 위한 국가 캠페인을 시행하라:** 빈곤층 인구를 확인하여 참여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범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캠페인의 시행이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에는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특정한 요구(이민자, 노인 인구, 문맹 인구 등)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재정 지원(국가를 위해 주요 역할을 하는 모든 사회적 파트너 포함)이 필요하다.

- 혁신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제도를 찾아내고 결과를 보급하라:**

포용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지만, 평생학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제다. 유망한 이니셔티브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제도를 찾아내고 지지하며 보급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핵심이다. 이 연구는 우선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환경에서 이니셔티브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문서화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것은 평생학습 플랫폼(주요 메시지 2 참조)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공에 대한 시장 규제의 추세가 점차적으로 커먼즈 접근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이 방식을 통해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협력을

4. 평생학습을

공유재로 확립

이용하여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재화로 정의되는 '공유재(common good)'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교육자원과 IT 솔루션을 포함한 관련

도구를 공유재로 설정하면, 교육기관들은 참여, 접근, 이용 측면에서 커먼즈를 지속가능하며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가장 배제된 집단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설계되고 제작된 학습 도구와 교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디지털 학습 도구는 다양한 장치, 특히 스마트폰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커먼즈 기반 도구와 자원은 개별 학습자와 교육자, 풀뿌리 학습 이니셔티브, 공공 서비스에 의해 공동으로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학습 교재와 도구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누구나 학습 교재와 도구의 생성이나 동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커먼즈 접근방식은 학습자, 사업 구상자, 정치적 행위자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학습 도구와 자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공유재로서 확립하고, 학습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공동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유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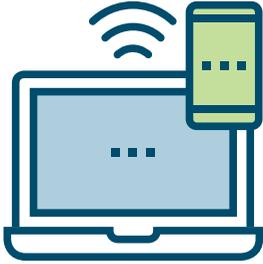
행동 방침



- 평생학습에 대한 커먼즈기반의 접근방식을 촉진하라:** 이것은 동료 간 협력을 통해 학습자원을 생성하도록 촉진하고, 적극적인 시민성을 자극하기 위해 학습도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커먼즈, 즉 교수 및 학습 자원의 무료 이용 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먼즈' 개념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평생학습 이니셔티브에 적용해야 한다. 커먼즈로는 오픈 액세스, 오픈 소스, 공개교육자원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협동형 온라인 플랫폼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 중 일부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육 커먼즈의 실험 모델을 제공하며 좋은 출발점을 보여준다.

- 디지털 경제의 기업부문과 대화에 참여하라:** 평생학습 기술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도구를 규정하기 위해 기업 주체들과 대화하려는 구상이나 노력 등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요구된다. 여기에는 공개교육자원 (OER) 운동에 따른 과정이 몇 가지 유용한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학습 기술에 대한 폭넓고

공정한 접근성 보장

평생학습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기술은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와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학습자와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고용 가능성 유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요구 충족, 사회적 포용 강화, 활발한 민주적 삶에 대한 기여 등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인교육을 포함한 교육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은 학습자를 참여시키고 지원하며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이미 학습은 보다 더 적응적이고,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으며, 반응적인 방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능력은 현재 교육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접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의하면, 온라인 제공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배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기술의 사용을 맥락화하고, 삶과 학습의 다양한 부분에 기술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구분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다. 이것은 사람들의 교육 경험을 '일상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분명해진다. 이렇게 맥락화된 접근방식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적인 기술 기반 학습과는 다르다. 학습은 언제나 사람들의 삶,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들이 속한 사회 집단, 그리고 폭넓은 사회적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평생학습은 이런 이슈를 부각하는데 유용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환경(예: 고령화,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학습을 맥락화할 수 있는 기회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체계와 기술을 바탕으로, ICT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점차적으로 학습자의 교육 요구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반응형 학습 활동이 포함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가상 도우미가 추가 학습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학습자는 모든 축적된 학습 경험에 대한 역량을 평가 받은 후 마이크로 수료증(micro-certification)을 받는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및 정보 착취를 통해 인프라가 학습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위험이 따른다. 기술 접근의 상당한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 역시 중요한 우려 사항이다. 따라서 기술 인프라와 학습 도구는

모두를 위한 프라이버시 및 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술 공개는 평생학습 의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개방된 인터넷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교육 부문은 점점 더 상업화되어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연합(UNESCO Global Education Coalition)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설립된 파트너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행동 방침



-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이례적인 재구성은 전 세계적으로 실험과 혁신의 돌풍을 일으켰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임시적인 대응을 변혁적인 교육 및 학습 인프라의 제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는 코로나 19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이니셔티브들을 연장시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시적인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것이다.
- ‘2050년을 향하여—공공재 및 공공재를 위한 디지털 학습 기술’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라:**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교육 커먼즈의 일부로서 학습자를 위해 그리고 학습자와 더불어 교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 소유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재(public good)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산업 및 기술 공동체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유망한 기술 도구나 집단 관리 모델을 확인하고 향상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배제된 집단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

평생학습 관점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전 세계 형식교육기관의 양질의 교육과 적절한 재정 지원에 대한 보장 이외에,

교육기관 임무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명확하게 정의된 학생 집단(취학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에게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기관의 사명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학교와 대학의 의무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학생들이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연령이나 교육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화된 의무는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학습 경로를 통한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기존의 관행이 이런 변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엄격한 자금 지원 체계, 대학 입학 기준, 자격증에 기반한 채용, 비형식과 무형식 학습의 낮은 인지도, 교사의 새로운 교수법 도입을 위한 기회 부족 등이 있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변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과 응용 교수법 역시 이러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교사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습 과정의 안내자이자 촉진자의 역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과목별 학습 외에도, 교사는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행동 방침



- 교육과정을 개정하라:** 학교와 대학이 평생학습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학습과 내용을 초등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 누적 가능한 학점제 도입 등 학습 프로그램과 학습 형식 면에서 유연성이 더욱 요구된다.
- 교수법을 혁신하라:** 교육기관들은 '무엇을 배울지'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배울지'로 관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는 지식을 맥락화하고 학생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지식이 학습자에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지역적,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법의 혁신은 교수 및 학습이 인식론적 다원주의 원칙에 따라 지도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태도를 길러주고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준다.

- 지역사회에 개방하라:** 학교와 대학은 보유 시설과 자원을 성인 학습 및 교육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어린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건강, 금융, 문해, 시민교육, 학습공동체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식을 제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7. 학습의 집단적 차원

인식 및 촉진



학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다. 집단적 노력으로서의 학습은 모든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학습이웃, 학습동아리, 학습공동체, 학습가족 등과 같은 개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주요 메시지 8 참조), 이 개념들은 모두 학습의 사회적 차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집단학습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동료 학습, 세대 간 학습, 멘토십(mentorship), 특정 관심의 학습 집단 등이 있다. 이런 집단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학습과 지식 개발에 대한 이해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예, 수화, 토착지식, 육아 등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집단적 차원은 특히 공공 공간에서의 대면 학습을 새롭게 강조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디지털로 연결된 유사한 관심을 가진 학습 집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집단적 차원은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배려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한다. 학습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그리고 지구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고 학습도시나 학습행성(learning planet)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다. 이처럼 학습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관련 있는 학습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거나 또는 디지털 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그 공간을 교육 커먼즈로 유지하려는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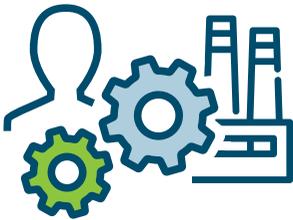
행동 방침

-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라:** 디지털 학습 플랫폼의 개발은 사람들을 온라인 상으로 끌어 모아 공간의 제약 없이 큰 규모로 집단학습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이런 플랫폼으로 인해 개인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안내하고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 시스템은 사람과 기관들의 협력적 학습지원 네트워크

안에서 관심과 요구에 따라 학습자들을 연결할 수 있다. 지구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습 플랫폼을 공적 영역에서 교육 커먼즈의 일부로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제적 범위를 가지는 한편, 지역적 요구 및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정책을 통해 집단학습을 촉진하라:** 학습의 집단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평생학습 증진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평생학습은 정책에 의해 반영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은 집단학습 환경 및 활동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학습 지원, 물리적 학습 공간(교육기관, 문화 공공 장소, 근로 환경 등) 조성, 디지털 도구의 자유로운 접근, 학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학습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연구 지원 등 적절한 재정 공급이 포함된다.
- 학습을 기념하라:** 학습 이벤트나 축제의 정기적인 개최는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축제 분위기에서 학습을 기념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경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발견하게 해준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를 동원하여 학습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정을 유지시키고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을 기념하는 일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과 타인은 물론 지구를 돌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8. 학습도시를 포함한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장려 및 지원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는 평생학습 문화를 향한 상향식(bottom-up) 변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 내에서 이 이니셔티브들은 교육 기관을 넘어 다양한 학습 기회를 포괄하는 학습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학습도시, 학습마을, 학습공동체, 학습이웃, 학습 동아리, 학습가족 등과 관련된 지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은 학습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학습을

타인과 함께 배우며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회적 실천으로 인식하는 공통점이 있다.

도시는 인구 밀도와 이용 가능한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다. 사람 중심과 학습 중심의 접근 방식인 '학습도시'라는 개념은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협력적이고 행동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교육훈련기관과 문화기관을 연결시키고, 공공 부문의 대표자, 시민

사회단체, 고용주 등의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 시킴으로써,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한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좋은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환경은 시민들이 인접한 환경 내에서 일상 활동과 학습을 연계시키고, 특정한 요구에 따라 자신들만의 학습 경로를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이 도시들은 시민들이 정보에 바탕을 둔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변화와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기회는 지역사회의 특정한 요구와 관련되는 자발적인 형태의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환경 지속가능성 증진, 새로운 유형의 연대감 형성(코로나 위기 동안 나타난 것처럼), 성희롱 방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방, 여성 건강 지원 등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이 그렇다. 이런 지역사회 주도형 이니셔티브는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며, 종종 세대 간 학습을 장려하기도 한다(예: 주거형 돌봄 시설을 학습 장소로 활용). 아울러 이런 이니셔티브들은 웰빙 향상,

기업가정신 촉진, 적극적인 시민성 증진 등과 같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다.

가족은 하나의 아주 작은 단위다. '학습가족'의 개념은 세대 간 소통에 초점을 두며, 같은 가족 구성원 간의 특정한 상호 작용이 전 연령대에 걸쳐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한다. 학습가족(학습이웃이나 학습동아리도 포함)의 예는 평생학습이 개인의 소집단 간에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학습 공간(학교,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공원 등)의 (재)창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공간에 모여 자신들과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학습을 삶의 다른 측면과 연결시킨다. 따라서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인 시민성과 사회적 응집력을 증진시킨다.

행동 방침

- 학습문화를 강화하는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라:** 지역 차원의 학습에 대한 다양한 집단적 방식을 촉진하라. 학습가족, 학습동아리, 학습이웃, 학습도시, 학습지역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들은 사람 중심 및 학습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지역사회 내 학습 문화 조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가 점점 더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적이고 행동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 학습기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하라:**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학습 기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하라. 기존의 많은 (공공) 공간들, 특히 공공 도서관, 박물관, 커뮤니티 센터, 종교 장소 등이 이미 지속적인 교육의 진입점이 되고 있다. 이 공간들은 이미 학습공동체와 학습 기회를 위한 공간으로서 지원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터를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터학습의 개선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자영업과 비공식 경제를 포함해 모든 부문의 일터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학습 환경이며, 기업이 학습기관이 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일터학습은 평생학습의 주요 원동력이며, 업무의 성격과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변화를 고려하면 일터학습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일터학습을 평생학습 문화의 일부로 이해한다면, 학습자는 재훈련, 추가 훈련, 변화하는 업무 조직에 대한 적응, 혹은 직업 변경 등의 목표를 가지고 일터학습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이 필요하거나 그것을 원할 경우 일터학습은 이런 희망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일터학습의 활성화와 개선은 개인이 학습 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평생학습 문화에 일터 학습의 개념을 통합하면 다양한 학습 경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비형식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터에서 학습 문화를 조성하면 이전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예: 장애인, 보육 책임이 있는 부모, 노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다.

9. 일터학습

개선 및 활성화

이러한 접근은 현재의 일터학습 기회, 특히 직업기술 훈련을 통해 역량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세대 간 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공식 및 비공식 멘토십 제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일터학습은 디지털 기술의 향상으로 더욱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일터학습이 평생학습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해력, 수리력 및 디지털 기술의 강화, 조직화된 업무 경험을 통한 학습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 등 근로자 각자의 요구에 맞추어 학습기회를 개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한적인 일터학습은 좀 더 진보적인 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연한 단기 과정이나 다양한 인센티브(금전적 보상, 인정, 검증, 인증을 위한 옵션 등)는 물론, 근로자의 일터 내에서의 자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행동 방침

- 일터에서의 훈련기회를 늘려라:** 일터의 학습 환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이나 비공식 경제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일터의 지원이 크게 증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터에서 직접 실행하든 또는 인접한 학교, 대학, 온라인, 다른 학습 공간에서 실행하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단일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포함된다. 일터 내에서의 멘토십 제도 역시 인력 간 전문지식의 전달을 통해 교육을 위한 귀중한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
- 일터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라:** 일터에서의 학습 기회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은 예비 학습자가 일터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재검토하고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고용주가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권장하라:** 자금 조달 계획 및 지원 외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평생학습 참여의 목적을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주는 근로자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평생학습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회사나 부문 차원에서 적절한 정보와 안내 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 일터학습의 다양한 결과를 인지하라:** 사전 학습을 포함한 인정, 검증 및 인증(recognition, validation, accreditation: RVA) 절차는 일터학습을 촉진하는데 핵심이다. 하지만 RVA 절차는 아직도 부재하거나 너무 어렵다. 따라서, 주로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과 관련된 일터학습의 RVA에 대한 수행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간소화 과정은 RVA에 대한 국가 체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고용주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터 내에서 그리고 일터 간에 RVA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고용인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면서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주요 메시지 1 참조).



10.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

평생학습을 인권으로 재확인하면서 교육권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교육권은 더 이상 학교 제도에 대한 접근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학습 결과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디지털 방식의 평가를 포함하여 평생학습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권리는 입법, 정책 및 실천으로 강력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자격을 정의하는 포괄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 그렇듯이, 교육권은 점점 더 별도의 권리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권리로서 확립이 되면, 권리의 이행은 관련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평생학습권에 대한 정책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학습에 대한 접근은 모든 국가에서, 언제나, 모든 언어(점자와 수화 포함)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선택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 커먼즈를 통해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은 생태학적 차원에서 학습을 자유로 여기는 생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생학습은 인권이라는 근거로 사회 정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 정의될 것이다. 지구를 위한 학습이 핵심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학습은 지구를 위한 인간의 권리로 그리고 '지구의'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공동체에 대해 배우며, 지구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틀 속에서, 평생학습은 더 이상 다음 세대의 일꾼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시민을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다. 세계시민이란 각 개인, 세계의 다른 공동체 그리고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을 말한다.

인간의 총체적인 존엄성을 지향하는 인권으로 간주되는 평생학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필수 사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1. 학습에 대한 접근성:** 언제나, 모든 국가에서, 모든 언어로.
- 2. 회복력:** 생태, 경제, 역학, 정치 등 다양한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교육 공동체.
- 3. 투명성:**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의 학습자원과 시설은 개방되어야 하고, 공적 영역에 속해야 한다.



행동 방침

-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개발하라:**

평생학습의 규범적 기반은 국제 인권 조약에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들로는, 교육권 이행을 위한 '4A 프레임워크'(Accessibility, Availa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접근성, 이용성, 수용성, 적응성) (ESOSOC 1999), "교육권과 평생학습권의 인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선언한 제5차 국제성인교육회의(CONFINTEA, Conférence Internationale sur L'éducation des Adultes, 함부르크, 1997),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에 이어서 '성인학습과 성인교육을 교육권의 필수 요소이자 교육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는 '2015 유네스코 성인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고'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으로서의 평생학습은 의회의 평생학습법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제화는 평생학습을 구성 원칙으로 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접근 및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평생학습의 인권 차원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지정하라:**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된 교육권은 결국 교육 부처를 평생학습의 의무를 지닌 부처로 변모시켜 부문 간 학습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이 부처들은

취학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형식교육 서비스의 관리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의 확대된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사이트에서 다양한 교육 제안을 할 것이다. 또한 부처들은 수요 중심의 참여적인 방식으로 개인 학습자와 학습 집단에게 기회와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집단, 개인의 특정한 요구와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부처들은 학습에 필요한 기술이 사회의 가장 소외된 구성원들에게 저비용이나 무료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라:**

평생학습의 보편적인 권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자격의 양식이나 특정 조항은 국가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간제 유급 고용에 있거나 유급 고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자격은 자기 개발 학습 및/또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 활동으로 인식되는 보편적인 기본 약속의 일부가 될 것이다.



결론: 평생학습 문화를 향하여

학습사회의 개념과 모든 개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반세기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교육시스템이 가장 발전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 더 많은 재정 지원,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정부, 개인, 고용주, 농촌과 도시 공동체, 학습도시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문화적 변화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생학습은 교육과 사회 정책의 중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보조적 제도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축소된 견해는 단편적인 개혁을 가져왔고, 교육시스템과 정책의 핵심에서 평생학습을 사실상 분리시켰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공재, 인권 및 여러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인식하려는 문화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목표는 고용, 노동시장 변화, 건강과 웰빙, 환경 지속가능성, 적극적인 시민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응집력을 포함한다.

평생학습 문화를 구축하려면 평생학습의 개념화, 제공, 조직화, 구조화, 자금 조달, 평가 등의 방식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과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의 개념을 온전히 수용하려면, 학습과 교육은 '전 생애(life-long)'에 걸쳐서 일어나고 '삶의 전 영역(life-wide)'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회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학습자 주도형 학습 경로의 개발을 강조하고, 학습의 초기 단계와 학습기관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취학전 교육(교육기관과 가족 포함)과 초등교육(및 학교)은 토대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진정한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생학습은 다양한 학습 경로, 공간 및 양식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어린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경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체로 간과되어 온 학습의 집단적 차원은 충분히 인식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사회적 과정이자 교육적 과정이다. 이는 대면 학습과 세대간 학습을 중요시한다. 무엇보다도 빈곤층,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정책과 도구의 대상을 정의하고, 이 의제를 법률, 정책, 제공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기본 틀에서 우선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설계하는 것은 학습의 미래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평생학습 문화는 '장벽을 넘어' 학습을 증진시키며,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학습의 조직을 재고해야 한다. 형식, 비형식, 무형식, 온·오프라인 학습의 기회를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의 이니셔티브를 연결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학습도시를 비롯해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도 그 일부다. 결정적으로, 학습

생태계 조성은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소년들이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도록 평생학습기관의 의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학습기관의 책임 제도를 개혁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평생학습 문화는 노동시장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멘토십 제도를 통한 세대 간 학습을 포함해 일터학습의 개선 및 활성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정부 자금 지원 계획과 시장 기반 원칙은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집단적이며 협동적인 접근방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편성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대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디지털 혁명은 지식과 교육자원의 창출 및 공유를 위해 많은 협력적인 형태에 문을 열어주었다. 지역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 예를 들면 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팹랩(fab lab, 제작 실험실)⁵ 등이 새로운 형태의 지식 생산과 공유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 공간들은 글로벌 차원의 오픈 소스와 관련된 배포형 지역 생산 모델에 기반한다. 평생교육을 공유재로 인식하고 평생학습 정책 수립과 평생학습 도구 설계에 있어서 커먼즈 접근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의 평생학습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 내용은 공유 자원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평생학습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교육을 커먼즈로 접근하려면 기술을 점차적으로 모두에게 개방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증진을 위해서는 상업적 동기로부터 자유로운 개방된 인터넷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부문의 기업 주체들과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다.

21세기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민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특히 평생학습의 법적 체계의 수립과 관련하여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한 것처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응집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 생태계 내에서의 평생학습과 그 조직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변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출발점이 된다.

⁵ 해커스페이스(hackerspace)는 해랩(hacklab), 해스페이스(hackspace),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라고도 한다. 이것은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적인' 작업 공간으로, 기계 가공, 기술, 과학, 디지털 아트, 전자 예술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사회화하며 협업하는 공간이다(<http://en.wikipedia.org/wiki/Hackerspace>).

출처

- Baril, D. 2016. *L'éducation des adultes en transition. Apprendre + Agir*, Edition 2016. [Online] Available at: <https://icea-apprendreagir.ca/leducation-des-adultes-en-transition/>
- Baril, D. 2020. The new learning frontier. *ONLY CONNECT – the lifelong learning blog from UIL*, 7 January 2020. [Online] Available at: <https://thelifelonglearningblog.uil.unesco.org/2020/01/07/the-new-learning-frontier/#more-556>
- Baril, D. 2020. Adult education 2.0. *ONLY CONNECT – the lifelong learning blog from UIL*, 11 February, 2020. [Online] Available at: <https://thelifelonglearningblog.uil.unesco.org/2020/02/11/adult-education-2-0/#more-581>
- CEDEFOP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2020. *Briefing note – Apprenticeships for adults*. Available at: <https://www.cedefop.europa.eu/en/publications-and-resources/publications/9147>
- Chahine, M.A. and Sibai, A.M. 2019.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in Lebanon: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Prospects. In: Ferosa, M. (Ed).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and Active Ageing: European and Asian-Pacific Perspectives*. Cham, Springer, pp. 181–193.
- Delors, J.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UNESCO.
- 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9. *Preliminar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Ms. Katarina Tomasevski,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33*. [E/CN.4/1999/49] Available a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99/101/34/PDF/G9910134.pdf?OpenElement>
- ECOSOC. 1999.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Twenty-first session, 1999). [E/C.12/1999/10] Available at: <https://undocs.org/E/C.12/1999/10>
- Faure, E. 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Paris, UNESCO; London, Harrap.

- Leal Filho, W., 1997. *Lifelong Learning and Environmental Educa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Lengrand, P. 1970. *Introduction à l'éducation permanente*. Paris, UNESCO [Lengrand, P. 1975.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London/Paris: Croom Helm/The UNESCO Press].
- Maruatona, T. 2015. Lifelong learning for social inclusion of ethnic minorities in Botswana. *Education,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10, pp. 37–54.
- Mendieta, E. 2020. Toward a Decolonial Feminist Imaginary: Decolonizing Futurity. *Critical Philosophy of Race*, 8(1-2), pp. 237–264.
- Ogg J., Rašticová M. 2020. Key Issues and Policies for Extending Working Life. In: Ní Léime Á. et al. (eds) *Extended Working Life Policies*. Cham, Springer.
- Phillipson, C. and Ogg, J. 2013. *Active Ageing and Universities: Engaging older learners*. London, Universities UK.
- Selwyn, N. and Jandrić, P. 2020. Postdigital Living in the Age of Covid-19: Unsettling What We See as Possible. *Postdigital Science and Education*. [Online] Available at: <https://doi.org/10.1007/s42438-020-00166-9>
- Selwyn, N., Hillman, T., Eynon, R., Ferreira, G., Knox, J., Macgilchrist, F. and Sancho-Gil, J. M. 2020. What's next for Ed-Tech? Critical hopes and concerns for the 2020s. *Learning Media & Technology*, 45(1), pp. 1–6.
- Shulla, K., Leal Filho, Walter, Lardjane, S., Sommer, J. and Borgemeister, C.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Ecology*, 27(5), pp. 458–468.
- Taddei, F. 2018. *Apprendre au XXIe siècle*. Paris, Calmann-Lévy. [Online] Available at: https://www.cri-paris.org/user/pages/shared-documents/WEBSITE-CRI_PDF-learning-in-the-21st-century-2020.pdf
- Tham, Y.N.R., Walker, Z., Tan, S.H.D., Low L.T. and Chen, S.H.A. 2019. Translating Education Neuroscience for Teachers. *Learning: Research & Practice*, 5(2), pp. 149–173.

UIE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1997.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Final report*. [Online]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10364>

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5. *Communities in Action: Lifelong Lear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4185>

UIL. 2015. *Unlocking the Potential of Urban Communities: Case Studies of Twelve Learning Cities*. Hamburg, UIL.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4536>.

UIL. 2017. *Unlocking the Potential of Urban Communities. Volume II. Case Studies of Sixteen Learning Cities*. Hamburg, UIL.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58944>

UIL. 2018. *Promoting Lifelong Learning for All: The Experiences of Ethiopia, Kenya, Namibia, Rwanda and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Hamburg UIL.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6/002629/262940E.pdf>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5.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2555>

UNESCO. 2016.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UNESCO.

UNESCO. 2020. *Education in a post-COVID world: Nine ideas for public act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717/PDF/373717eng.pdf.multi>

UNESCO. 2020. First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UNESCO Headquarters – Paris, 28–29 January 2020.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2674?posInSet=1&queryId=4223eb90-51d6-48c5-9bd5-790d5d6df2f2>

UNESCO. 2020. *Humanistic futures of learning. Perspectives from UNESCO Chairs and UNITWIN Networks*.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2577/PDF/372577eng.pdf.multi>

UNESCO. 2020. *Protecting and transforming education for shared futures and common humanity*.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380?posInSet=1&queryId=a38971b0-6658-4eb1-9bb1-227198b21d4f>

UNESCO and UIL. 2016.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Paris, UNESCO.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5179?posInSet=3&queryId=c968cb43-a99b-443a-ab97-013ba77287f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6. *Right to education: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Seventy-first session. 29 August 2016. [A/71/358] Available at: https://www.right-to-education.org/sites/right-to-education.org/files/resource-attachments/UNSR_lifelong_learning_%20and_right_to_education_2016.pdf

Walker, Z., Chen, S.H.A., Poon, K. and Hale, J.B. 2019. Brain Literacy Empowers Educators to Meet Diverse Learner Needs. *Learning: Research & Practice*, 5(2), pp. 174–188.

Yang, Y., Niu, X., Yang F. and Hu, P. 2020. Higher Education Expansion, Selections Based on Non-Cognitive Abilities and Gender Differences: The Case of China. *Frontiers of Education in China*, 15(2), pp. 279–312.

부록 1: 실행 조치 선정 목록

조치 실행의 관련성과 시급성 정도: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해당기간(현재부터 2050년 사이)은 조치를 실행하는 시작점을 나타낸다.

평생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수립 — 초학제적 연구, 지식 보급 및 평생학습의 선구자들 연결

관련성

시급성

현재 - 2025

이 조치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문 간 협력뿐만 아니라 초학제적 대화, 연구, 지식 보급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학습 관련 이슈에 대한 현재의 연구를 공유하고, 개방형 질문을 해결하며, 추가 탐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예: 연구자, 교육 실무자, 학습자)을 참여시켜, 이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토론하고, 성, 빈곤, 기후 변화, 포용 등과 같은 범분야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정기적인 대면 및 온라인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초학제적인 연대를 구축한다.

초학제적 대화는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평생학습자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명시하기 위해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의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공공 또는 민간 공급자에 의한 학습 제공과 역량 개발을 안내할 수 있다. 둘째, 아날로그와 디지털 수단을 연결하여 다양한 대상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형 학습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실행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교수 및 학습 개념을 더 탐구하고, 툴킷을 제작하며,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에서 시작된 허브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속하고,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공적인 소통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이로 인해 결국 평생학습 연구를 재정 지원 기관의 의제에 올려놓을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운동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성공적인 평생학습 프로젝트를 수집하여 소개하면 더욱 더 많은 활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 이니셔티브에 사회혁신상을 수여하거나 세계 교육의 날을 중심으로 학습 주간을 조직하여 학습을 기념할 수도 있다. 세계 곳곳의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지도 작성은 2050년까지 평생학습의 비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이주민/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기회 제공

관련성

시급성

현재

취약계층을 평생학습 정책 의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취약계층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현재 활동과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대해 아무 것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기존 내에서 그들과 공동 작업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협력적인 방식이 접근성과 포용성을 보장한다.

이 조치의 달성은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확인하여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조치를 통해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평생학습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기존 과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적으로 부처들을 참여시키고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문해 및 디지털 훈련과 같은 기초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트라우마 경험에 대처하거나 폭력 주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나 카운슬링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차원의 촉진자 및 봉사 활동가들이 이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자금 조달의 메커니즘에는 학습 증진을 위해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외에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unearmarked) 보조금을 취약계층의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에 제공하여, 이들의 재정적 자립성을 기르고 개인적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습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이나 기타 제공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사람이 무료로 온라인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조직 및 학습도시/구역 구축

관련성

시급성

2025 - 2030

학습의 사회적 차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도시의 경험 그리고 실행 공동체나 동료 간 학습 모델의 개발에서 예시된 것처럼, 학습공동체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조직과 학습도시의 구축은 상향식(bottom-up) 이니셔티브에 크게 좌우된다. 교류 증진과 모범 사례 보급은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창출하는 열쇠다.

오픈 소스 운동과 협업을 통해 집단학습은 촉진될 수 있으며, 이는 공유 방식의 실제적인 틀을 만들어 낸다. 학습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세대 간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또한 학습공동체 개발을 강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집단학습을 육성하는 일은 평생학습 증진에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른 영역(빈곤 감소, 건강, 주택, 환경 보호, 물과 식량 안보 등)의 이니셔티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학습조직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 학습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특히 정책 공유를 통해 장려되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가 도시 간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학습조직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평생학습에 중점을 두는 교육부가 전문지식, 인센티브, 자금을 제공하여 관련 계획이나 사업을 촉진하고 조정해야 한다.

대면 무형식 학습을 위한 물리적 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

관련성

시급성

현재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재창조와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학습 공간을 (재)창조하는 것은 학습도시 및 학습구역 개념과도 연결된다.

새로운 학습 공간을 만들고 기존의 학습 공간을 이용하는 것 외에, 이 조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동료 간 학습 및 세대 간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학습 활동의 예로는 청년층이 노년층에게 신기술 설명, 노년층이 청년층에게 특정 기술 교육, 독서 동아리, 온실 건축, 육아, 수작업 관련 기술, 프로그래밍, 토착어, 산아 제한 등이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학습 기회는 특히 응집력 있는 사회 구조를 제공하고 배려 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습자를 시민 참여와 연결시킬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은 지역사회에 조예가 깊고,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들로 이루어진 '원스톱 샵(one-stop shop)'을 제공한다. 평생학습 경험은 학습자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 기술, 태도, 가치(윤리, 인간 존엄성, 공정성, 관용, 초개인화(hyper-individualization) 대응 등)를 심어준다. 이 원스톱 샵은 사회적인 공동의 관심사와 학습자들을 연결시킨다. 이 공간들을 통해 지역 이익 단체들은 무형식학습에 대한 접근과 기회 증대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학습 기회의 제공은 디지털 인프라 및 재난과 관련된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잠재적 위기를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공간은 지역사회와 함께 개발되어야 하고 국가 및 지역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 대사(ambassador)'는 사회적 포용 및 관련 주제를 촉진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평생학습 목적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 커먼즈의 공동 창출

관련성

시급성

현재 - 2025

평생학습을 공유재(common good)로 확립하고 개방형 기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교육 커먼즈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 도구, 생태계는 설계와 제작이 모두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습 교재의 경우가 그렇다. 이것들은 모든 교육 수준에 대해 여러 진입점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 자료, 도구, 생태계는 다양한 학습자에 맞추어,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의 특정한 요구를 고려해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요구 사항에 반응하고 다양한 관점에 민감해야 한다.

학습자가 학습 자료, 도구, 생태계의 공동 설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한 형식 및 비형식 교육기관의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습 자료와 도구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평가도 포함한다.

또한 교육 커먼즈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오픈 액세스 플랫폼(open-access platform)과 같은 새로운 집단 관리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기업들이 공익을 위해 기꺼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과의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교육 커먼즈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학습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및 새로운 접근 지점을 통합해야 한다. 기존의 자원을 찾아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으로 탐구하는 것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화형 플랫폼(주요 메시지 7 참조)은 다운로드 및/또는 링크 소스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학습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다.

디지털 평생학습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관련성

시급성

현재 - 2030

학습자가 학습 전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안내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다양한 학습 양식을 연결하여 학습 생태계 전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평생학습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재(및 과거) 학습 훈련 활동을 모아놓은 온라인 디렉토리와 더불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 학습자와 학습 집단이 기존 경험과 전략, 통찰력을 활용해 학습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에 맞는 학습 기회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학습 생태계 전체에 걸쳐 다양한 학습 기회를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양식을 포함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위한 잠재적인 새로운 주제들을 제안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도구들로 인해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학습 집단을 만들어 여러 기관과 공간에서 학습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 네비게이터'는 기존의 (무형식) 학습 활동이나 학습 요구에 대한 크라우드소싱 방식 등을 통해 학습 생태계의 집단적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도구들은 교육 커먼즈 라이선스 하에 공동 제작되고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또한 오픈 소스 공동체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통해 시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관점에서 학교,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형식교육부문 기관의 지원**

관련성

시급성

2025+

형식교육기관은 평생학습의 근간을 이루며 강화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습자를 평생학습 문화에 몰입시키는 핵심 지점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어린 시절부터 평생학습을 장려하면서, 낯설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은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무형식 및 비형식 학습을 장려하면서 전 학년에 걸쳐 계속되어야 한다. 선도적인 대학들이 그들의 사명 선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형식교육기관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선언문에서 평생학습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교수들이 호기심 향상 등과 같은 목표를 통합하고, 강의 설계, 교수 및 평가에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을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평생학습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는 자신을 평생학습자로 인식하고 또한 평생학습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업무 환경 내에서 전담 교육을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교사 및 직업교육 훈련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평생학습 문화를 수용하고 학문적, 직업적, 기술적 역량과 인증의 동등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살펴보면, (i) 교육과정 재설계(예를 들면, 대학의 경우 전체 학위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모듈식 강좌(modular courses) 제공, 18-25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세대 간 요소 및 '평생학습' 제공 등); (ii) 형식교육에서 교수 실행 평가 및 교육 목표 재평가(지식 제공자에서 지식 창조 및 기술 개발의 촉진자로 전환); (iii) 교사 역할의 새로운 정립; (iv) 수업 관리 방법보다는 학습 지속성 관리 방법에 대한 자기 인식 증진(학습 내용보다는 학습 이유에 초점을 맞춤); (v) 형식 및 무형식 환경 사이에서 학습자의 이동성 증대로 인해 인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학습의 종착점이라기보다 학습과 교수의 피드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vi) 특히 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을 통한 직업 훈련에 국한하지 않고 실무 교육의 통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정치적 의지, 적절한 자금 지원, 교사-멘토-촉진자 간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인프라 제공, 효과적인 실천을 공유하고 평생학습의 관점을 업무에 통합하기 위한 제도나 체계들의 연결 등이 있다.

일터 기반 학습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주 지원

관련성

시급성

현재 - 2025

자영업자와 비공식 경제를 포함한 일터학습을 개인의 학습 경로뿐만 아니라 학습집단과 학습조직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 전담 훈련가 사이에 전문지식을 이전하는 멘토십 또는 P2P 방식이 조성되어야 한다.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교육을 직무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저숙련 근로자를 위해서는 디지털 및 기술의 역량 강화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터와 관련된 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핵심은 이론과 실무의 연결을 통해 훈련 기관과 관련 산업 간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훈련 기관은 실무 지식을 전달하고 학문적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산업계 출신의 '초빙 학자'를 보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직업 훈련가나 강사를 임시로 산업계에 소속시켜 기술을 재충전시키고 새로운 통찰력을 공유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고용주를 지원하려면 일터 관련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습조직을 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술 감사라는 형태로 필요한 기술과 기존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수요 중심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 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훈련 프로그램과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인이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국가 기술 정책은 특히 대규모 비공식 부문에서 이와 같은 일터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회는 고용주에 의한 자금 지원이나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제로 금리의 평생학습 대출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이 관리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평생학습기금'을 도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터 관련 학습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무형식적으로 습득한 기술의 경우 인증서의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을 거버넌스 및 정책으로 전환

관련성

시급성

현재

평생학습 관점에서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적 임무를 재확인하고 재정의해야 하는 과제다. 다양한 학습 수요와 요구, 학습 제공자와의 확장된 파트너십, 그리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위치를 찾고 실행 범위를 정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을 만든다. 학습의 부문 간 네트워크를 더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교육 계획을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처의 범위와 임무는 '평생학습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평생학습부의 주요 책임은 일반 대중을 위한 학습 기회를 관리하고, 학습 기회를 더 넓은 학습 생태계에 통합하는 것은 물론, 학습 생태계의 집단적 개발과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요 측면의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학습부의 관리와 조정 기능은 평생학습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대화형 플랫폼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간의 학습 정책 및 국가와 지역 상황에 대한 적응을 촉진할 것이다.

평생학습을 거버넌스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화는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준비 작업의 맥락 안에서 국가 및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평생학습을 위한 공교육의 의무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 게다가, 소통과 인식 구축은 행위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경우, 학습을 건강 혜택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건강 증진 캠페인에 평생학습을 통합할 수 있다.

**평생학습을 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강력한 입법적 기반 개발**

관련성

시급성

현재 +

평생학습의 발전은 교육권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는 구별되는 평생학습권의 정당성, 범위, 의무 및 의무의 주체 (duty-bearers)를 명확히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법적 기반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권 및 관련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의 기고문을 수집하는 공개적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평생학습권이 교육권에 관한 기존의 규범 문서 및 법 체계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수요 측면의 학습자 중심 접근방식에 대한 영향, 집단적이고 커먼즈를 기반한 관점의 채택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영향 등이다. 나아가 추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 특히 커먼즈 접근방식과 보편적 기본 소득과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철학적, 법적 노력은 2023년 제75차 교육권 선언 기념일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중간 단계로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2022년)는 평생학습의 보편적 권리와 관련하여 회원국,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고려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다.

부록 2: 협의 참가자

전문가 그룹 구성원

다니엘 바릴(Daniel Baril), 성인교육협력연구소(Institute for Cooperation in Adult Education, ICEA) 소장, 몬트리올, 캐나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 집행이사회 의장

안나벨 천(S.H. Annabel Chen), 심리학 교수, 학습연구개발센터(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Learning) 센터장 대리, 난양이공대학, 싱가포르

툴리에타 피에로 고스망(JulietaFierroGossman), 천체물리학 교수, 천문연구소,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멕시코 시티, 멕시코

발터 레알(Walter Leal), 환경기술학부 환경기술 교수, '지속가능성 및 기후영향관리' 연구 및 이전 센터 센터장, 함부르크 응용과학대학교, 독일

프레셔스 룡가(Precious Lunga), 영국 런던과 케냐 나이로비에 본사를 둔 건강 기술 회사 바오밥 서클(Baobab Circle)의 대표 겸 공동 설립자

토닉 마루아토나(Tonic Maruatona), 성인교육 교수, 교육대학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개발 학부, 보츠와나 대학교, 가보로네, 보츠와나

에두아르도 멘디에타(Eduardo Mendieta), 철학 교수, 록 윤리 연구소(Rock Ethics Institute) 부소장,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유니버시티 파크, 펜실베이니아 주, 미국

牛新春 (Sunny XinchunNiu), 교수, 고등교육연구소, 푸단대학교, 상하이, 중국

짐 오그(Jim Ogg), 사회학 교수, 노화연구부 부장, 통계예측 연구본부, 프랑스 국민연금기금(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파리, 프랑스

닐 셀윈(Neil Selwyn), 교육학 교수, 교육대학, 디지털교육연구그룹(Digital Education Research Group)의 핵심 구성원, 모내시대대학교(Monash University), 멜버른, 오스트레일리아

아블라 시바이(Abla Sibai), 역학 교수, 역학 인구보건학부, 보건과학대학, 레바논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 베이루트, 레바논

프랑수아 타데이(François Taddei), 학제간 연구센터(Center for Research and Interdisciplinarity, CRI) 공동 설립자 및 센터장, 파리, 프랑스, 학습과학 유네스코 석좌(UNESCO Chair).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팀

데이비드 아초아레나 (David Atchoarena), 원장,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넬레 피셔(Nele Fischer), 컨설턴트

에디스 해머(Edith Hammer), 프로그램 전문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알렉스 하우스얼스(Alex Howells), 프로그램 부전문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박종휘(Jonghwi Park), 프로그램 전문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라울 발데스 코테라(Raúl Valdés-Cotera), 팀장,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교육 분야를 변화시키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평생학습의 잠재적 기여를 고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로 다른 분야와 국가에서 온 12명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와 원칙을 제시한다. 아울러, 교육의 사회적 개인적 차원을 인식하고,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평생학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초학제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구성은 평생학습을 교육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배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일련의 주요 메시지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침과 선정된 정책 조치를 보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